

송주호의 명곡 산책 - 플루트

작년 1년 동안 연재하여 클래식 음악을 소개했던 '테마클래식' 시리즈가 올해부터는 '명작 산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곡들을 소개하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YouTube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럼 올해 2018년도 클래식 음악과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플루트 작품입니다. 플루트는 가볍고 연주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며 대중적이어서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크 시대의 거장 바흐와 현대 플루트의 아버지인 뱀, 프랑스 플루트를 대표하는 타파넬과 드뷔시, 그리고 오늘날의 흥미로운 플루트 음악을 소개합니다.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두 곡의 플루트 소나타, e단조 BWV1034(1724) & E장조 BWV1035(1741)

18세기 초 독일 쾰텐 공정의 레오폴트 공은 바이올린과 비올, 하프시코드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궁정 관현악단의 단원을 18명까지 확대하여 쾰텐을 당시의 가장 중요한 음악 도시의 하나로 만들 정도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았죠. 바흐는 이곳에서 1717년부터 1723년까지 카펠마이스터(음악감독)로 재직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전보다 급료가 두 배나 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직했을 때 바흐를 압박했던 교회음악 작곡의 의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유와 자유를 한껏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진 무반주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들이나 중요한 하프시코드 작품,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관현악 모음곡>과 같은 대규모 기악 작품들이 이 시기에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었죠. 이후 다시 교회 음악의 의무가 지워졌던 라이프치히 시절(1723~1750)에서도 수

량은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기악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바흐의 플루트를 위한 실내악 작품은 <모음곡, BWV997>과 <무반주 파르티타, BWV1013>, <여섯 개의 소나타, BWV1030~1035>, <트리오 소나타, BWV1039>, 그리고 <음악의 헌정>에 포함되어있는 '트리오 소나타' 등이 있습니다. 다른 관악기와 비교해볼 때 유독 플루트 곡에 독보적인 수량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흐와 가까이 지냈던 플루트 연주자들의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쾰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에 걸쳐서 작곡된 여섯 곡의 플루트 소나타들은 특히 위작 논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BWV1030~1032의 번호가 매겨진 세 곡의 소나타는 바흐의 둘째 아들인 C. P. E.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 : 1714~1788)나 요하임 크반츠(Joachim Quantz : 1697~1773)의 곡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루트 소나타 e단조, BWV1034>나 <플루트 소나타 E장조, BWV1035> 두 곡은 다행히도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 있으며,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림 1.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출처 : www.goto.com

<플루트 소나타 e단조>는 17세기 바로크의 전형적인 ‘교회 소나타’(sonata di chiesa) 형식인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724년 8월과 11월 사이에 라이프치히에 머물렀던 당시 뛰어난 플루티스트였던 프리드리히 고트리프 빌트(Friedrich Gottlieb Wild)를 위해 작곡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는 당시 작곡된 칸타타에서도 그를 위해 어려운 플루트 솔로를 넣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느린 1악장은 일반적인 당시 플루트 작품에 비해 높은음을 요구하며, 빠른 2악장은 상당한 기교를 필요로 합니다. 느린 3악장에서는 반복되는 베이스 반주 위에서 플루트의 아름다운 선율이 한껏 날아오르며, 4악장에서는 빠르고 화려한 선율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마무리합니다.



라이프치히 시절인 1741년에 작곡된 <플루트 소나타 E장조>도 교회 소나타 형식인 느리게-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형식적으로나 작품을 이끌어가는 숨씨가 탁월하여 바로크 플루트 음악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죠. 바흐가 프로이센의 제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바흐에게 <음악의 헌정> 주제를 제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를 만나기 위하여 포츠담을 방문했던 1747년에 왕의 비서였던 미하엘 프레더스도르프(Michael Gabriel Fredersdorf)에게 남겨준 자필악보를 19세기에 사보한 악보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 테오발트 뵘 Theobald Böhm(1794~1881)

그랑 폴로네즈 Grand Polonaise, op.16(1831)

작곡된 당시에 사용된 악기로 연주하는 ‘시대악기 연주’가 많아지면서, ‘목관악기’ 플루트의 예전 모습인 ‘플라우토 트라베르소’(flauto traverso : ‘가로 플루트’라는 뜻으로, ‘트라베르소’라고도 많이 부릅니다.)라고 불리는 옛 플루트를 무대에서 보게 되는 기회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에 구멍이 뚫려있는 매우 간단한 구조의 트라베르소는 음량이 작고 음역이 넓지 않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테오발트 뵘은 1832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질을 금속으로 바꾸고(금세공 장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했을 겁니다.) 구멍을 크게 하여 음량을 키웠으며 손

그림 2. 테오발트 뵘 / 출처 : theobald-boehm-shop-de.foildrop.com



가락이 닿지 않은 먼 곳까지 구멍을 뚫어 음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키들을 붙여 그 구멍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키를 이용하여 한 손가락을 열면서 다른 손가락을 동시에 닫는 ‘크로스 핑거링’ 없이도 반음계 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죠. 크로스 핑거링을 하도록 곡을 쓰면 악기를 잘 모르고 곡을 썼다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연주 기교나 멜로디 등 작곡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명된 플루트는 ‘뵘 플루트’라고 불렸습니다. 테오발트 뵘 한 사람에 의해서 트라베르소는 일순간에 현대식 금속 플루트로 개량된 것입니다. 플루트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뛰어난 연주자이기도 했던 뵘은 자신의 명인기와 함께 자신의 플루트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화려한 작품을 작곡했으며, 슈베르트와 베토벤 등의 작품을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그랑 폴로네즈>는 낭만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플루트 작품 중 하나로 손꼽는 곡으로, 키들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빠른 장식음과 반음계적인 진행이 많이 사용되며, 뛰어난 기교를 요구하여 매우 화려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 클로드-폴 타파넬 Claude-Paul Taffanel

(1844~1908)

‘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환상곡 Fantasia sur le Freyschutz

19세기의 오페라는 이탈리아의 독무대였습니다. 18세기에는 프랑스의 장-필리프 라모와 영국의 헨리 퍼셀,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등이 자국의 오페라를 부흥시키고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후배들은 낭만시대 이탈리아인의 감각적인 표현을 당해내지 못했죠. 이러한 때에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 1786~1826)는 독일 낭만 오페라의 자존심을 지킨 존재였습니다. 그는 분실된 작품과 미완성 작품을 포함하여 모두 열 편의 오페라를 남겼으며, 그중 일곱 번째 작품인 <마탄의 사수>(Der Freischütz : 1821)는 오늘날에도 자주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인 <오베론>(Oberon : 1826)의 서곡도 오케스트라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죠.

<마탄의 사수>는 진정한 독일 오페라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독일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역시 민요를 바탕으로 작곡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은 후대 작곡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바그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플루티스트였던 클로드-폴 타파넬은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오페라의 주요 멜로디를 바탕으로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크게 유행한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시작점에 위치하는 인물이죠. 9세에 아버지로부터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하여 10세에 첫 연주회를 가졌으며, 파리 음악원을 졸업했던 16세 때에 콩쿠르에 첫 우승을 거두었죠. 당시 연주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작곡도 곧잘 했는데요, 타파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나 쉽게 볼 수 없었던 오페라의 멜로디를 환상곡으로 다시 작곡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마탄의 사수> 주제에 의한 환상곡>에는 이러한 시

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있는 것이죠.

이 곡의 주요 주제들은 <마탄의 사수> 2막에서 가져왔습니다. 막스의 아리아 일부가 서주에 등장하며, 오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가테의 달콤한 아리아 '조용하고 경건한 현인'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엔헨의 아리아 '지나가는 날씬한 젊은이여, 오라'의 폴로네이즈 리듬으로 마무리됩니다.



♣ 클로드 드뷔시 Claude Debussy(1862~1918)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1894)

19세기 말에 서양 미술에서 일어난 '인상주의'는 신고전주의의 이상과 낭만주의의 격렬한 몽상에서 벗어나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했던 사조로서, 빛을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에서의 '인상주의'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받은 느낌을 귀로 들리는 감각으로 묘사하는 데에 주력했죠.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이러한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 작품으로,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로부터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신'은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목자와 가축의 신으로, 말라르메의 시는 어느 날 오후 낮잠에서 깨어난 목신이 시링크스의 피리를 가지고 님프들을 쫓아다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3. 클로드-폴 타파넬 / 출처 : www.wikipedia.org



그림 4. 클로드 드뷔시 / 출처 : www.minimattnews.com

목신은 양 땀을 이끼면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춘다. 무더운 여름날 오후, 목신이
 시실리 해변의 삼림이 우거진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뜬다. 그
 때 하얀 몸의 금발을 한 귀여운 물의 요정들을 만났던 어제 오후가 떠오른
 다. 물의 요정들은 호숫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었는
 지 현실이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어쩌면 목욕을 한 것은 백조의 무리들
 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시 물의 요정들이었 거 같다. 그것이 아니라
 면 백합꽃이 피었을까? 목신은 이렇게 무표히 누워 덩굴며 그때를 회상하
 다. 더 나아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일어난는 몽롱한 욕망, 그리고 관능
 적인 희열... 환상의 요정은 곧 사라지고, 온화한 날씨에 풀 향기 그윽
 한 조용한 오후, 목신은 다시금 잠이 든다.

그림 5. 마이크 모워 / 출처 : www.discogs.com



곡은 대체로 시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구체
 적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환상적인 분위기와 관능적인 꿈과
 같은 모호한 희열을 노래했으며, 자유로운 표현으로 세련되게
 만들었죠. 특히 목신의 나른한 오후의 모습을 표현한, 조성감
 이 흐릿한 플루트의 첫 선율은 드뷔시를 대표하는 멜로디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드뷔시의 작품 중 가장 자주 연
 주되는 곡 중 하나로서, 32세 때인 1894년에 작곡되었습니다.
 본래 관현악곡으로서 원곡에서 플루트는 독주악기가 아닌 관
 현악의 한 악기로 등장하지만, 목신을 상징하는 플루트가 독주
 악기로서 주제 선율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곡이 갖
 는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
 루트와 피아노로도 자주 연주됩니다. 20세기 초의 근대 프랑
 스 작곡가들이 플루트를 중요하게 사용하게 된
 것을 드뷔시의 이 작품의 영향으로 보아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 마이크 모워 Mike Mower(*1958)

소나타 라티노 Sonata Latino(1994)

마이크 모워는 영국의 왕립 음악원에서 플루트를 공부한 플루
 티스트로서, 색소폰과 클라리넷도 연주하며 다양한 규모의 재
 즈 앙상블에서 연주했습니다. 1985년에는 색소폰 재즈 사중
 주단 ‘이치 핑거스’(Itchy Fingers)를 결성하여 1997년까지 이
 끌었으며, 질 에반스와 티나 터너, 제임스 골웨이 등과 함께 활
 발한 연주 활동을 벌였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부분 플루트
 와 색소폰 작품으로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쉽지 않은 작품

들이지만, 화려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지배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자신이 세운 ‘이치 핑거스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
 으며, 녹음과 편집, 제작 등도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업하
 고 있습니다.

<소나타 라티노>는 세 악장으로 이루어진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각 악장은 살사와 룸바, 탱고, 보사 노바 등 라
 틴 아메리카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임
 스 골웨이는 이 작품을 피아노 대신 살사 밴드와 연주하기도
 했죠. 모워는 이 작품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을 그대로 보
 여주기보다는 현대 라틴 재즈의 즉흥연주를 살리는 데 주안점
 을 두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의 개성을 살리려고 노
 려했다고 말했습니다.

1악장 ‘살사 몬투나테’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살사를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2악장 ‘룸방고’는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
 의 룸바와 탱고를 섞은 것입니다. 플루트는 어두운 카덴차에
 서 리드미컬한 피아노로부터 분리된 듯 부유하지만 곧 룸바
 에 맞춥니다. 3악장 ‘보사 메렌고바’는 브라질의 최신 보사 노
 바에서 출발하죠. 플루트는 즉흥 연주하는 솔리스트를 표현
 하며, 피아노도 보다 과감하게 재즈 화성을 사용합니다. 3악
 장 후반부에서는 옥타브 아르페지오가 등장하면서 베네수엘
 라와 콜롬비아의 메렌게 스타일을 사용했으며,
 코다에서는 1악장에서 등장했던 쿠바의 살사
 가 재등장합니다. 🎵

